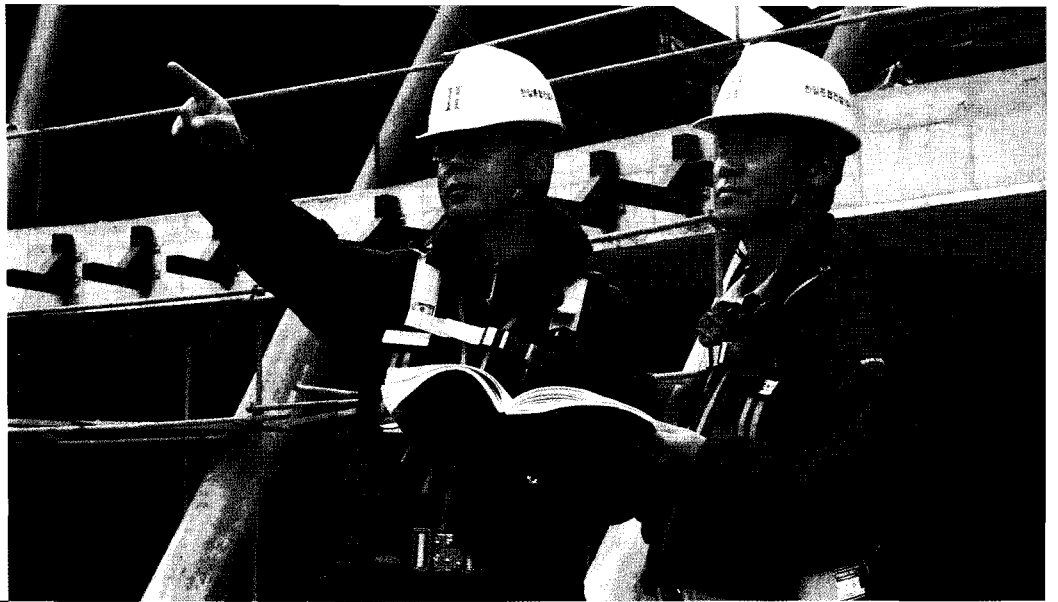


‘세계 7대 자연경관’에 걸맞은 안전현장 구현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설현장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ldhfree@safety.or.kr)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최고 휴양지, 외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곳 바로 제주도를 이르는 말이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12일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에 의해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우리나라 국민 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관광지 및 자연유산의 산실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곳에 아주 의미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바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다. 제주의 관광을 상징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해 온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에 준공될 계획에 있다. 이 센터는 제주 자연유산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제주도의 모든 자연 문화적 유산을 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통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만약 안전하지 못하다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공정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 보지 못하는 사실이라면, 전세계인은 물론 지역민, 국내관광객 모두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곳 건설현장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쉼터이자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번 들여 다봤다.





사고없는 고품질의 현장을 추구

이곳은 모든 공정에 있어 기본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이에 안전도 철저히 기본에 입각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이곳은 협력업체 소장 및 공사과장과 상호 협력하여 타 공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은 모두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보호구의 착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올바른 착용방법도 일일이 지도하는 등 보호구 착용문화를 조성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이곳은 위험요소 제거활동, 작업 전 안전교육 등의 기본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해나가면서 현장에 안전 분위기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역량 강화

안전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을 100% 안전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곳은 무리하게 무재해, 무사고를 추구하기 보다는 인지되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데 안전관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다.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회의 및 교육시간을 통해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과 사고원인, 그리고 직원들 상호간 인지하고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공유시켜나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취약시간대에 안전점검 역량 집중

건설현장에서 사고 빈도를 보면 대부분 점심시간 전후, 작업종료 직전에 많이 발생한다. 이때가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기 쉬운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들 취약시간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 곳곳을 점검·지도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작업시작 30분전에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전일 과음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작업에서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65세 이상 근로자들은 별도로 분리시켜 각 공종 팀장 및 현장 직원에게 수시로 작업상황을 확인

토록 하면서, 고령근로자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나가고 있다.

“근로자들은 한 울타리에 있는 가족”


이곳은 무재해 무사고를 외치며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무조건 강조하지는 않는다. 또 안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준공이후 지금까지 손가락 협착사고 1건 외에 여타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타 현장들보다 더 탄탄한 안전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방적, 강압적인 안전을 하지 않고, 자율적 그리고 여유롭게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곳 현장에서의 안전은 말 그대로 가족의 사랑이다. 서로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인식 아래 상대방의 안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위험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함께 대처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들의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현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성안전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율과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관리 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설현장. 이곳 현장에 조성된 안전문화가 전세계인들에게 제주의 훌륭한 자연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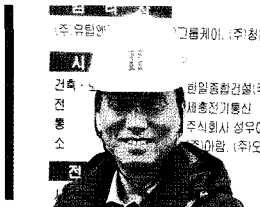
5월 20일 공사 현장 모습



기본에 입각한 안전활동 충실

무사고 고품질의 현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시설의 설치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위험요인에 대한 관심, 관리자들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것만 철저히 지키더라도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방심하지 않고 이 기본에 입각한 안전관리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여는 시설보다 안전하게 지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우리 제주도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인식시켜나가고 싶습니다.

김창섭 현장소장



자율안전문화 조성에 노력

과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 복종 등 강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은 큰 실효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현장에서는 근로자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율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인전은 우리 현장과 근로자의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념을 잊지 않고, 현장의 안전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오용현 부장

